

성지주일 · 고난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최바우로 신부    설교: 최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요셉  
지휘: 이유니스        반주: 정모니카        선창: 김니콜라

개회예식

†성지축복식 ..... 별도 예식문  
†입당성가 ..... 203장 .....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도 ..... 집 전 자  
영원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성자께서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독서 ..... 이사 50:4-9상 ..... 말 은 이  
성 시 ..... 시편 31편 ..... 다 함 께



-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다 지쳐 눈은 몽롱하고 괴롭습니다.  
○ 목이 타며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며  
○ 한숨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 죽은 사람처럼 기억에서 사라지고  
○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 사람들의 비방소리 들려오며,  
협박은 사방에서 미쳐 옵니다.  
○ 그들은 나를 노려 무리 짓고  
이 목숨 없애려고 음모합니다.
  - 주여, 나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 당신만이 내 하느님이시라 고백하며
  - 나의 앞날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 악을 쓰는 원수들의 손에서 이 몸을 건제주소서.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 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독서 ..... 필립 2:5-11 ..... 말 은 이  
†복음환호송 ..... 말 은 이

†수난복음 ... 마태 26:14-27:66 ... 사제 · 성가대  
(설교는 수난복음으로 대신합니다.)  
니케아신경 ..... 16쪽 .....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 22쪽 ..... 다 함 께  
†봉헌성가 ..... 564장 ..... 다 함 께  
성찬기도 ..... 23쪽 ..... 1 양 식  
거룩하시다 ..... 25쪽(A곡) ..... 다 함 께  
주의기도 ..... 28쪽 ..... 다 함 께  
성체나눔 ..... 29쪽 .....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30쪽(A곡) ..... 다 함 께  
성체성가 ..... 515장 ..... 다 함 께  
†영성체후기도 ..... 77쪽 .....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한 십자가를 공경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외에는 아무 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 32쪽 ..... 집 전 자  
†파송성가 ..... 406장 .....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3월 24일)	다음 주일(3월 31일)
1독서	정연창	이숙영
2독서	박순호	홍종분
대 도	윤희진	최용욱
다음주일 전례독서	사도 10:34-43   시편 118 1고린 15:1-11   요한 20:1-18	
성 가	212   225   214   220	
복 사	이동우 이서현	보혈조력 정스테반
다음주간 교회청소	<4조> 유정훈 김승현 이진봉 김영란	

(1997-2024 / 교회설립 27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4년 3월 24일 성지주일 · 고난주일 · 나해 · 흥색

제28-12호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필립 2:5-11; 마태 수난사화 26:14-27:66)

오늘 필립비서 2장이 전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찬가'는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낭독한 찬미가입니다. "우리과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겸손'의 뜻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마침내 "모두가 입을 모아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필립 2:1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첫 신앙인들은 삶의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이 여전히 희망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오복음의 수난사화가 전하는 십자가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절규는 성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외롭고 적막한 외침입니다. 고통스런 예수의 외침은 차마 말로 표현하지도 못할 끔찍한 비극을 경험한 이들의 절망을 대신 드러내는 언어이며, 그 슬픔과 아픔을 하느님께 올려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 외침은 사실 시편 22편의 시작구절입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 들리지도 않사옵니까?"(시편 22:1).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 또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터져 나오는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오복음

의 수난사화에 울리는 시편의 노래는 1절만이 아닙니다. 시편은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군중과 로마 병사들의 모습(마태 27:28-31)을 미리 보여줍니다. "사람마다 나를 보고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댁니다 ... 겉옷은 저희끼리 나눠가지고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시편 22:7, 18).

시편 22편과 마태오복음의 수난사화가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오늘 복음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절망과 비참으로 시작한 시편 22편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탄원하는 소리"(시편 22:24)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향한 찬미와 "오고오는 후손들"(시편 22:30)이 하느님을 경배하리라는 기대로 가득 차서 끝이 납니다. 시편 22편의 끝은 희망으로 가득찬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구절의 절망과 비탄은 확신과 기대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처형에 대한 마태오의 기록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조차도 희미하게 드러나는 희망의 빛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나는 희망은 꺼지지 않으며 취소되지 않고 되돌릴 수 없는 빛입니다. 이 빛을 품은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신자회장 최용욱(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율리아나)

## 고난 · 성지주일 (3월 24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마태 21:9)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던 이 일을 기념하여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축복하여 찬양하며 순행을 합니다. 축제의 분위기와 기쁨을 나누는 순행을 마친 후, 전례는 성주간의 엄숙한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환성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배반의 외침이 같은 군중의 입에서 나왔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찬례 중에 **수난복음**(마태 26:14-27:66)을 들으며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 2024년 성주간 전례

우리는 사순절 신앙 여정의 막바지를 걷고 있습니다. 성주간 신앙의 여정에 힘을 내어 함께 참여합시다.

고난 · 성지주일 (3월 24일)	오전 11시	성지축복 · 수난복음
성 화요일 ~ 성 수요일 (3월 26일, 27일)	오후 7시	화요일 성찬례 / 수요일 십자가의 길
성 목요일 (3월 28일)	오후 7시 밤 9시 ~ 익일 오전 6시	성찬제정 감사성찬례와 세족례 성체수직 밤샘기도
성 금요일 (3월 29일)	오후 7시	십자가 경배 장엄예식과 영성체
부활밤 (3월 30일)	오후 7시	부활밤 예식과 감사성찬례
부활대축일 (3월 31일)	오전 11시	부활대축일 감사성찬례

## 4월 13일(토) 서울교구장 주교 선출을 위한 기도

-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꾼(주교)을 위한 기도를 계속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시고,  
이 교구의 주교를 선출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돌보며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헌신할 충실한 목자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외울 말씀 22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 교회소식

### 전례와 사목

#### 성지 고난주일 안내

오늘(3월 24일) 11시 감사성찬례 중에 성지축복식 및 수난복음 낭독이 있습니다.

#### 성주간과 부활성삼일 전례

성주간과 부활성삼일 전례에 교우 모두 적극 참여해 주세요. 교회위원들과 활동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부활대축일

다음주일(3월 31일)은 부활대축일로 지킵니다.

### 알림

#### 365 성서 통독반(죽기 살기로 성서 읽기) 모집

4월 8일부터 시작하며, 하루에 4장씩 구약과 신약 성서를 읽습니다. 선착순 10명, 신청 받습니다.

#### 수요 성서공부

3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 금요 기도 모임

3월 29일(금) 오후 7시, 금요 기도 모임은 성 금요일 십자가 경배 장엄예식으로 대신합니다.

#### 청년회 모임, 학생회 모임

오늘(3월 24일) 11시 성찬례 후에 모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남부교무구 교무구위원회

오늘(3월 24일) 오후 3시 / 수원교회

#### 2024년 서울교구 성유축복 감사성찬례

3월 28일(목) 오전 11시 / 서울주교좌성당

#### 서울교구 청소년 영상제

청소년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질서와 생명을 돌보는 교회” 주제의 영상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참조해 주세요.

### 교우 소식

생일을 축하합니다 권영분(25일) 김동준(29일)

##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170,000원  
김준우/조장은 박종례
- 주일헌금 227,000원  
고미순 권순호 김승현 류한신 백옥경 유군상 유정훈 이은경 임혜지 장성환 장재현 장태현 조준행신부 최순덕 최용욱 황선숙
- 주일학교 유아운 유아현 2,000원
- 감사헌금 364,000원  
김소라(연서 생일) 윤희진 이은가 최미혜 차준섭신부/김승숙(범사) 사순절 헌금: 고미순, 김준우, 박선희, 박순호, 박종례, 백옥경, 백기은, 유군상, 이선자, 최순덕, 황선숙, 무명
- 특별헌금 30,000원  
정연창/박순호, 최용준신부/백기은(아론기금)

### < 성공회 산본교회 봉헌 안내 >

신한 100-033-428656 대한성공회 산본교회

### 주간전례독서 (3월 25일 ~ 30일 / 성주간)

	독서	복음
25일(월)	히브 10:4-10	루가 1:26-38
26일(화)	1고린 1:18-31	요한 12:20-36
27일(수)	히브 12:1-3	요한 13:21-32
28일(목)	1고린 11:23-26	요한 13:1-17, 31하-35
29일(금)	히브 10:16-25	요한 18:1-19:42
30일(토)	로마 6:3-11	마태 28:1-10

### ✧ 기도해 주세요 ✧

#### 대한성공회와 서울교구를 위하여

4월 13일(토) 서울교구장 주교 선출을 위해

#### 어려운 교우와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욱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임인택

#### 새교우(예비 신자) 이요한 전아영